



어우러짐

수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천상중생, 수중중생, 허공중생, 불입수호신장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화염의 세계라고 그 속에서는 꽃도 새도 불기도 짐승도 사람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어우러짐이라는 주제를 가진 그림을 그리며 온 우주의 중심인 수 미산을 두고 옷감을 깔때 날줄과 씨줄이 서로 만나듯이 개체들은 다 연관관을 갖고 필연적으로 만난다는 생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안에서 저녁 예불시간 전에 울리는 법고, 범종, 운판, 목어 소리의 어우러짐을 들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 물고기, 새를 제도하기 위해 울리라는 깊은 뜻을 생각하니 곧 우주법계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나무, 새, 미물들, 사람들, 이 모든것이 남이 아니고 나 일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윤회란 어찌보면 삶을 공평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 라즈니쉬의 금강경에 나오는 akse이란 단어의 해석

우주는 너와 나 없는 조화의 세계

각을 했다. 나는 인연의 소중함, 만남의 소중함을 항상 느낀다. 그래서 웃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존재의 필요에 의하여 그 자리에 있다고 보면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필요한 것이 된다. 비단에서 눈에 흰 예쁘고 작은 돌맹이도 진과 같으면 주머니에 넣어 와서 눈에 띄는 곳에 놓고 나 혼자 즐겼을테지만 그 돌맹이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원래의 자리에 그냥 놔 두는 것이 돌맹이를 위한

은 무척이나 경이롭다. akse은 ak on이라는 의미로 모두 (all)와 하나(One)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홀로 있을때는 우주 만물과 하나라는 해석을 보면서 akse이라는 단어가 메력을 느꼈다. 하나가 전체, 전체가 하나. 너와 내가 없는 조화의 경지를 모두 느낀다면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인정해주고 자기 본래의 자리에 만족해하는 이 모든것들이 서로 어우러진다면 이 세상에서도 수미타에서 볼 수 있는 화염의 세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본다. 이인옥 (서양화가)

거친 파도를 넘어서 ④ <골>



그런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오래가지는 않았습다. 얼마간 짐을 나갔다는 남편은 "다시 한 번 힘을 내 열심히 살아보자"고 내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수도공 일자리를 얻어 일할 때 나는 조계사에 다니며 부처님께 눈물로 지성을 드렸습니다. 제발 내 남편과 아이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없게 해 달라고.

그러던 어느날 우리에게 형운이 찾아왔습니다. 도자기 장사를 권유하는 어느 노인의 친절함 배려로 남편은 손수레를 준비하고 도자기 장사에 나섰습니다.

오후부터 새벽 1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 집에 두고 다닐 수 없기에 손수레 속에 아이가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덕분에 수입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정말로 세상사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번 돈을 토포하니 모아 그동안 진 빚도 다 갚고 전세 방과 화물자동차도 한 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생긴 우리 부부는 조계사 일요일법에 참석해 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회에 들게 했고 저는 따로 자모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상황에서 이처럼 그러저럭 살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부처님의 은덕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장화로 자신의 남편과 이혼할 작을 한 어느 여자가 남편과 뜻이 맞아 더 이상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한 것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자모회 총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거라는 생각과 내 인생의 과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내사장을 눈물로 하소연하니 총무는 저를 데리고 흥재동 정토포교원으로 갔습니다.

포교원 어느 보살님이 제 사정을 아는지 아무 걱정 말라고 하며 밤



“정말로 과보를 잘 받고 싶으면 피하러 말고 남편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로부터 만나자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분명 한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이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예상했던 것처럼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무진 고생을 무릅쓰고 살아 왔는데 또다시

문 테이프를 틀어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가다듬고 집으로 돌아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아니웃다회를 마치고 법륜스님을 만난 것은 실로 큰 인연이었습니다. 내 처지를 듣고 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 딱 먹듯이 쉬운 일은 아니요. 정말로 과보를 잘 받고 싶으면 어디로 떠나 피하러 하지 말고 이미 인연이어진 남편과 그 여자를

그자리에 그대로 두고 남편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고 무엇을 따라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계기였습니다.

괴로웠던 바로 모든 것을 쫓고 보고 수동적이며 피하러고만 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업에 묶여 있어 조그마한 경계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경계를 풀어야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순간 지은 인연을 딱 깨달으면서 아차하며 한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법륜스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믿고 실천에 옮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회한도 눈물도 많았던 곡절의 세월이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보다 희망찬 세상이 남아 있다는 위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글을 쓰기전에 남편과 그 여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부처님과 스승님께 진심으로 귀의합니다.

오정숙 (흥재동 정토포교원)

◆ Having thrown behind(himself) pleasure and pain, and previously (mental) joy and distress, having acquired equanimity, tranquility, purity,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마음의 안일을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정진하여 체력과 지혜를 두루 갖추어 저 관아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Strenuous for obtaining the supreme good (Nibbana), with a mind free from attachment, not living in idleness, being firm, endowed with bodily and mental strength,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마음의 안일을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정진하여 체력과 지혜를 두루 갖추어 저 관아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Not abandoning seclusion and meditation, always wandering in (accordance with) the Dhammas.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16 seeing misery in the existence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홀로 앉아 선정을 버리지 말고, 모

든 일에 항상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근상인지를 분명히 알고 저 관아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Having abandoned both passion and hatred and folly, having rent the ties, not trembling in the loss of lif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 그리고

뒤얽힌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려라. 목숨을 잃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저 관아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abandon 포기하다, 단념하다. *seclusion 오직 한 곳, 은둔 *attachment (마음의)애착 *equanimity (마음, 기질의)평정, 평온 한명우 기자

GRAND FANTASIA

꿈의 나라를 편다. 그랜드침대.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생활 속의 불교 ④

나만을 위해 복을 짓는다는 보시행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재물의 사용방법에 따라 개인이나 국가나 삶의 형태·의미는 판이해진다. 쾌락을 좇는 사람, 내일에 부자라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이 있고, 근비확증에 주력하는 나라, 교육에 비중을 두는 나라, 복지를 우선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하나 할 때 불가에 서는 남을 돕는 일,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으뜸으로 삼는다. 보시의 실천이다. 불자들은 흔히 보시를 개인 차원의 '복 짓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유하자면 자신의 내일을 위해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와 비슷하게 여긴다. 보시를 하고 복을 구하는 것-건강, 승진, 합격, 재물, 명예 등을 바라는 것은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니며, 가계에서 돈 주고 물건을 사듯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긴다. 그래서인지 방방곡곡의 대박불사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새긴 보시행

들이 줄을 잇는다. 다음 생을 위한 연례적인 보시 행사도 늘 성황이다. 불교의 입(業)사상은 한 치의 빈틈도 없다는 인과(因果)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둔다'는 이 철칙은 '보시란 곧 복을 짓는 일'로 강력히 암시한다. 고로 불자들은 온연 중 '내가 이렇게 보시했노라'를 공개하고 싶어한다. 타종교에 비해 유독 불교계에서만 얻을 없는 보시가 별 낯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보시가 곧 내 복을 위한 것이라면 구태여 이름 석자를 밝혀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을 남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 예금장을 때처럼 복 짓는 일도 실명제인가. 가르침은 무주상(無住相)보시를 참보시라고 한다. 기독교에선 '오른 손이 한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고

불가에선 마음으로도 내가 봤다는 생각을 짓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내가 봤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 또한 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이 남아 있는 한 해탈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 세계가 상대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오로지 개별적인 업보만 가능하지 않다. 내 돈이라 해도 1백프로 내 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기에 돈도 벌었고 상대가 있기에 재물도 권력도 가능했다. 고로 비록 내 돈이라고, 나만의 복을 위해 보시했다 해도 이미 거기엔 다른 이의 조력이 포함되어 있을 터이니 어찌 혼자만 복을 차지하려 하겠는가. 우리의 삶은 줄기는 내 가족, 내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넓게는 국민, 인류, 나아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고로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업이 아

나라 공동의 업일 수밖에 없다. 나의 선행, 나의 악행은 곧 선의 공업, 악의 공업으로 연결된다. 예컨대 나의 환경 파괴 행위가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인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 개인의 엄청난 도둑질은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드는 것도 공업의 산물일 수 있다. 나의 보시행이 나만의 복이 아닌 까닭에 보살의 서원이 가능하고 자비 결심의 귀감이 된다. 불자라면 부처님께 서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신 까닭을 생활 속에서 깊이 음미해보고 실천할 일이다. 협찬: 신선필